

일본 경제 동향_2015년 10월

(新아베노믹스)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회복세 약화	2
2. 무역적자 축소 반전	6
3. 엔저약화·저주가·저금리	9
4.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지속	11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신 아베노믹스	12
2. TPP 타결에 따른 일본 공산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14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8
1. 9월 대일무역적자 확대 반전	18
2.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	21
V. 참고 자료	22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2
2. 주요 경제 일정	24

1.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3	2014	2014			2015				
			2/4	3/4	4/4	2/4	3/4	7월	8월	9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	113.1	112.2	-
GDP증가율(연율,%)	1.6	△0.1	△7.5	△1.3	1.3	-1.2(p)	-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6.0	69.5	16.3	17.7	16.2	16.1	-	-	-	-
해외직접투자(조엔)	13.2	12.6	2.0	2.1	4.9	3.7	-	1.1	1.3	-
소비자물가 상승율(%)	전기비 0.4	2.6	2.3	0.3	△0.1	0.2	-	0.0	0.0	0.0
실업율(%)	4.0	3.6	3.6	3.6	3.5	3.3	-	3.3	3.4	-
수출(조엔)	69.8	73.1	17.6	18.3	19.8	18.8	19.0	6.7	5.9	6.4
수입(조엔)	81.3	85.9	20.2	21.2	22.1	19.1	20.0	6.9	6.5	6.5
무역수지(조엔)	△11.5	△12.8	△2.6	△2.9	△2.3	△0.3	△1.0	△0.3	△0.6	△0.1
경상수지(조엔)	3.3	2.6	0.3	1.7	1.4	3.8	-	1.8	1.7	-
환율	달러	97.7	105.8	102.1	104.0	114.3	121.4	122.3	123.2	123.2
	원화(100엔)	1,123	996	1,008	987	950	905	957	927	958
금리(10년물,%)	0.72	0.55	0.60	0.53	0.44	0.40	0.395	0.44	0.38	0.36
주가(닛케이)	13,651	15,460	14,655	15,562	16,660	20,058	19,474	20,373	19,919	17,944

주: (p)는 2차 속보치 *는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경기회복세 약화

○ '15.8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2.2로 전월비 0.9p 하락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상승율 3개월 연속 제자리

○ '15.8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

□ (무역수지) 무역수지 1,145억 엔 적자로 전월비 적자폭 축소

○ '15.9월 수출은 6조 4,174억 엔, 수입은 6조 5,318억 엔

□ (환율) 엔저 약화

○ '15.9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20.2 엔

* '15.9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86원으로 전월비 2.9% 엔고·원저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회복세 약화

□ (경기기조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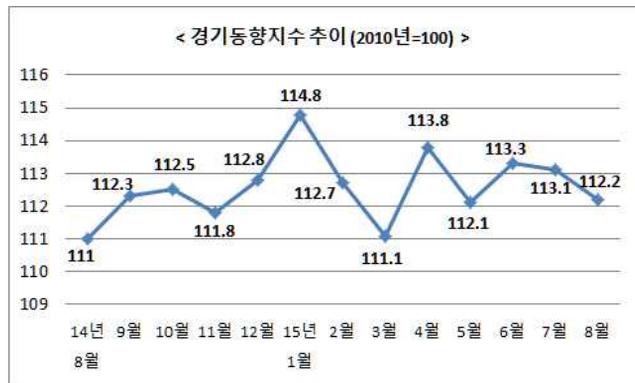
○ 중국경제의 감속 등을 배경으로 생산과 수출 부진으로 전월에 이어 경기회복세가 꺾이고 있음

- 일본 내각부가 10월 7일 발표한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가 112.2로 2개월 연속 하락

- 일치지수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중 6개 지표가 하락한 가운데, 광공업생산 등 생산관련지수의 하락폭이 확대

- 경기동향지수보다 1주일 늦게 발표된 월례경제보고에서도 생산과 수출의 약세 등을 들어 1년 만에 경기판단을 하향수정

· 다만 9월의 실질수출(수출물량)은 증가로 반전



자료 : 내각부

□ (전 망)

○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일본 내각부는 전월의 「완만한 회복」에서 「완만한 회복으로」로 하향 수정하는 동시에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감속 리스크를 지적

- 수개월 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비 1.5p 하락한 103.5로 2개월 연속 약화

○ 이에 따라 2015년 3분기 GDP도 감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도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가 금융완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 현재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기업수익과 고용의 호조가 중국경제의 감속 영향에 얼마나 버티어낼 수 있느냐가 향후 경기향방에 관건

<GDP>

□ ‘15.3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 ‘15.2분기 GDP성장률은 -1.2%로 1분기의 4.5%에서 크게 반전, 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
 - GDP의 60%를 점하는 개인소비와 對 중국 수출의 부진이 주된 요인
 - 다만, 주택투자와 공공투자가 증가함으로써 마이너스 내수기여도 방어에 일조
- ‘15.2분기 GDP성장률이 공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3분기에는 최소한 마이너스 성장은 면하고 경기후퇴국면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의 감속 등을 배경으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됨에 따라 3분기 GDP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수정, 마이너스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5.3분기 실질GDP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67%에서 0.55%로 크게 하향 수정한 동시에, ‘15년도 실질 GDP성장률도 당초 1.11%에서 일본정부의 전망치 1.5%를 크게 하회하는 0.97%로 하향수정
 - 다른 민간경제연구소들도 0%대 성장,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가운데, 미즈호종합연구소의 경우 3분기 GDP성장률을 -0.2%로 전망
- ‘15. 3분기의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후퇴국면으로의 진입가능성이 높아짐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p)
전기비			1.1	△2.0	△0.3	0.3	1.1	△0.3
전기비연율	1.6	△0.1	4.5	△7.6	△1.1	1.3	4.5	△1.2
전년동기비			2.4	△0.4	△1.4	△1.0	△0.8	0.8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국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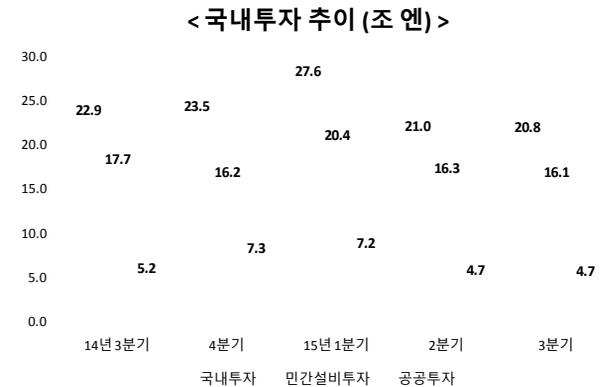
□ ‘15.2분기 국내투자 실질, 명목 모두 감소

- ‘15.2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는 전기비 실질 0.2% 감소, 명목기준으로는 24.6% 감소한 20.8조엔

□ (민간설비투자)

- ‘15.2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1.5% 감소한 16.1조 엔, 국내 투자의 77.4%를 차지

- 최근에는 설비투자의 공급 측 통계인 8월 자본재 출하지수가 전월비 5.7% 감소



자료 : 내각부

- 일본은행 단관(단기관측, 9월 조사)등 에 의하면, 적어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업수익의 호조와 투자마인드 개선이 투자계획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다만, ‘15.8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은 전월비 5.7% 감소, 3개월 연속 감소

□ (공공투자)

- ‘15.2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34.2% 감소한 4.7조엔으로 국내투자의 22.6%를 차지
- ‘15.2분기에는 공공투자의 증가율이 민간설비투자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국내투자 증가에 기여
- 그러나 최근에는 9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이 전년동월비 10.9% 감소, 8월의 공공공사 수주액도 1.5% 감소하는 등, 국내투자 및 경기부양에 대한 공공투자의 기여도는 낮아질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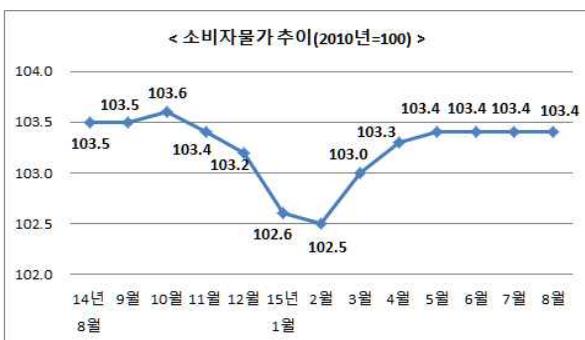
□ '15.8월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제자리걸음

- '15.8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전월과 같은 103.4로 3개월 연속 0.0%
 -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로,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실시한 2013년 4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마이너스
 - 중국경제의 감속을 배경으로 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과 석유제품 등의 가격이 하락한 반면, 식료품(생선·식품 제외)가격과 내구소비재 가격은 엔저영향으로 상승
- 일본은행은 2016년도 전반경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유가하락폭이 예상보다 커, 2% 달성을 위한 추가금융 완화가능성도 있음

<실업률>

□ 실업률 상승에도 고용사정은 개선

- '15.8월 완전실업률은 3.4%로 전월보다 0.1%p 상승
 - 15-24세층의 완전실업률도 0.1%p 상승한 5.6%
- 유효구인배율 상승으로 고용사정은 개선경향
 - 15.8월 유효구인배율도 1.23으로 전월보다 0.02p 상승, 23년 7개월 만에 최고수준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적자 축소 반전

□ (총 합) 무역적자 큰 폭 감소

- ‘15.9월 무역수지는 전월보다 1,145억 엔 적자로, 적자폭이 전월보다 4,549억 엔 축소
 - 전년동월비로도 8,474억 엔의 큰 폭으로 적자폭이 감소
 - 이와 같은 큰 폭의 적자폭 축소는 수출이 전월의 큰 폭 감소에서 큰 폭 증가로 반전된 반면, 수입은 유가하락으로 소폭 증가에 그친데 따른 것임
 - 對 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4,855억 엔에서 7,301억 엔으로 확대되었으나, 對 미국 무역흑자가 전월의 4,636억 엔에서 6,618억 엔으로 확대

< 2015년 9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5.8월			2015.9월			2015.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5.9	3.1	-11.7	6.4	0.6	9.1	56.8	6.5
수 입	6.5	-3.1	-6.9	6.5	-11.1	1.3	59.5	-6.9
수 지	-0.6	-40.2	112.7	-0.1	-88.1	-80.0	-2.7	-62.0

자료 : 재무성

□ (수 출) ‘15.9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큰 폭으로 증가 반전

- ‘15.9월 수출은 6조 4,174억 엔으로 전월의 -11.7% 감소에서 9.1%의 큰 폭 증가로 반전
 - 전년 동월비로는 0.6% 증가
 - 수출물량도 전월비 9.2% 증가, 전년 동월대비로는 3.9% 감소
- 앞으로 중국경제의 감속 등 리스크는 있으나 미국과 유럽 등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철강, 과학광학기기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플라스틱 대신에 과학광학기기가 포함
 - 수출증가품목 중 자동차의 수출증가폭이 전월비 28.5%로 가장 큼

< 2015년 9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엔, %) >

순위	품목	2015.8월			2015.9월			2015.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8,576	11.1	-21.4	11,018	7.6	28.5	86,925	9.5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390	3.9	-1.1	3,613	8.5	6.6	29,714	11.5
3	자동차부품	2,591	-2.0	-18.2	2,972	-1.3	14.7	25,863	1.6
4	철강	2,929	-8.2	-6.0	2,890	-17.0	-1.3	28,478	-2.4
5	과학광학기기	1,892	-7.4	-5.3	2,036	-4.9	7.6	17,746	0.8

자료 : 재무성

- 주요 수출상대 지역·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전월보다 감소
 - EU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전월비 14.6%로 가장 크고 이어 미국, ASEAN, 중국, 한국 순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3.9% 증가

< 2015년 9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엔, %) >

순위	국가	2015.8월			2015.9월			2015.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1,358	11.1	-15.3	12,790	10.4	12.6	112,921	15.5
2	중국	10,641	-4.6	-9.8	11,139	-3.5	4.7	98,308	1.0
3	ASEAN	9,076	2.0	-8.0	9,572	-0.6	5.5	88,174	9.2
4	EU	5,950	-0.2	-16.5	6,821	5.1	14.6	58,783	5.1
5	한국	4,193	-2.5	-7.1	4,357	-7.5	3.9	40,840	2.2
6	대만	3,691	8.8	-9.0	3,611	6.7	-2.2	33,616	8.3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5.9월 수입도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5.9월 수입도 6조 5,318억 엔으로 전월비 1.3% 증가로 반전했으나 수출증가폭에는 크게 못 미침
 - 전년 동월비로는 유가하락으로 11.1% 감소
 - 수입물량도 전월비 6.4% 증가, 전년 동월비로는 2.0% 감소

-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의류·동부속품, 통신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의약품 대신에 통신기가 포함
- 수입증가품목 중 통신기의 수입증가폭이 전월비 103.7%로 가장 크고 이어 의류 동부속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액화천연가스 순
- 5대 수입품목 중 유일하게 원유는 유가하락으로 수입이 감소

< 2015년 9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엔, %) >

순위	품목	2015.8월			2015.9월			2015.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7,649	-32.9	-13.3	6,376	-43.7	-16.6	64,695	107145
2	액화천연가스	4,150	-30.2	4.9	4,162	-32.4	0.3	43,671	57850
3	의류·동부속품	3,449	12.0	21.7	3,904	4.2	13.2	25,557	23930
4	통신기	1,747	42.0	-28.2	3,558	-6.5	103.7	21,212	18572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329	3.2	-12.1	2,582	0.0	10.9	22,495	21225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별로는 중국, 한국,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EU, 미국,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폭이 19.0%로 가장 큰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폭이 -12.2%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4.2% 증가

< 2015년 9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엔, %) >

순위	국가	2015.8월			2015.9월			2015.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5,495	14.6	-6.2	18,439	0.9	19.0	128,252	-7.7
2	ASEAN	9,342	0.3	-10.3	9,715	-4.2	4.0	79,711	-12.3
3	EU	7,685	21.8	-2.8	6,748	-3.5	-12.2	54,875	-9.6
4	미국	6,722	5.4	-3.1	6,172	-0.1	-8.2	48,171	-13.8
5	호주	3,484	-16.5	-3.6	3,243	-22.8	-7.0	28,850	-24.3
8	한국	2,510	-4.1	-9.3	2,615	-8.7	4.2	21,939	-15.9

자료 : 일본 재무성

3.엔저약화 · 저주가 · 저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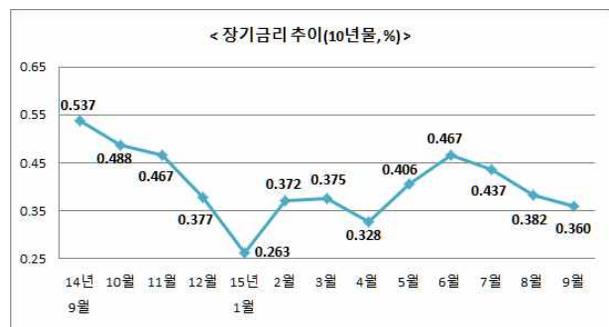
- ‘15.9월 평균 주가는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전월비 10% 하락한 17,944엔
- 10월 들어서는 미국 주가의 반발 등으로 반등, 10월 21일 기준 18,554엔

□ (금 리)

- ‘15.9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의 장기금리하락 영향으로 전월비 5.3% 하락한 0.36%
- 10월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져 10월 21일 기준 0.315%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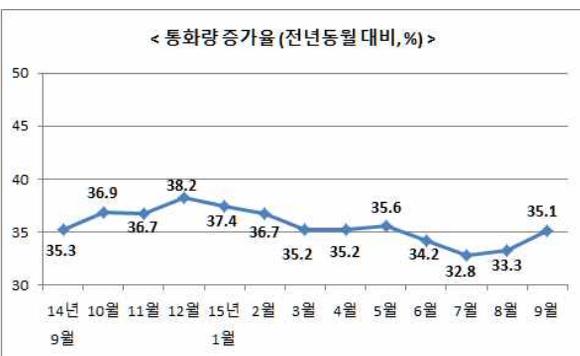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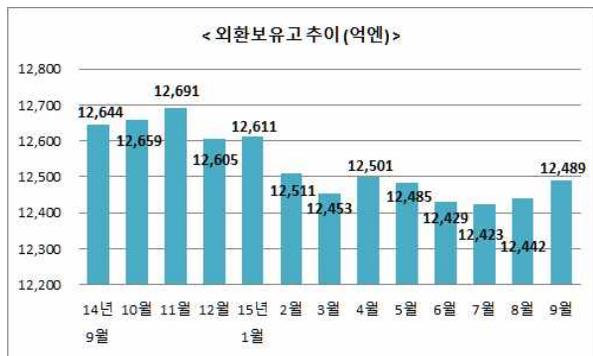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5.9월 본원통화(머니터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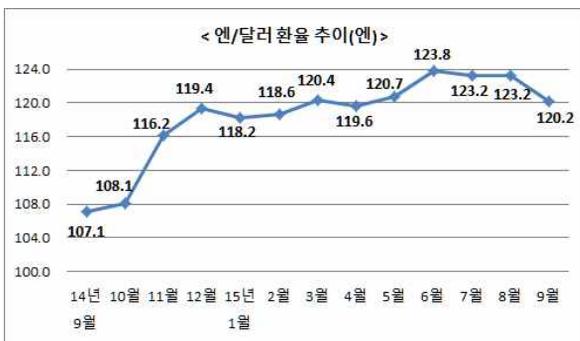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재무성

□ (환율)

- ‘15.9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2.4% 하락한 120.2엔(엔고)
 - 10월 들어서도 미국의 주가상승과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증가로 엔저세가 약화, 9월 21일 기준 119.90엔
- 당분간은 미·일간 금융정책 및 경기상황의 차이(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완화 중단,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 계속 등), 일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엔저 기조는 유지될 전망
 - 그러나 현재 시장 환율은 구매력평가(2015년 2월말 기업물가지수 기준, 달러당 약 100엔)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구매력평가로의 회귀·조정 가능성이 큼
- ‘15.9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86원으로 전월의 958원에 비하여 2.9% 엔고·원저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지속

□ **(동향)** 對미국 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 유지

○ '15년 8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3,457억 엔으로 전월비 18.1%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엔, %) >

		2013	2014	2015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금 액		131,946	125,929	9,244	10,023	20,757	6,223	11,399	13,457
증가율	전기비	34.9	-4.6	-33.2	8.4	107.1	-70.0	83.2	18.1
	전년동기비	34.9	-4.6	28.2	-51.3	177.1	-11.4	39.6	112.5

자료 : 일본 재무성

□ **(지역별)** 북미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유럽과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는 감소

○ 對 미국 직접투자의 증가폭이 전월비 361.4%로 가장 큼

○ 반면 유럽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의 감소폭은 -50.8%

○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6% 감소

- 對 한국 직접투자의 감소폭이 -83.4%로 가장 큼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엔,%)>

	2014년		2015.7월			2015.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25,939	-4.6	11,399	83.2	39.6	13,457	18.1	112.5
아시아	37,617	-4.3	4,529	78.2	54.1	4,256	-6.0	74.6
중 국	7,150	-19.3	766	-21.3	67.6	651	-15.0	27.9
한 국	3,328	3.7	445	8.0	-1.8	74	-83.4	-72.3
북 미	46,264	1.2	1,176	-	-	5,498	367.5	157.2
미 국	44,365	3.3	1,143	-	-	5,274	361.4	187.1
중남미	7,710	-22.1	1,169	34.8	220.3	1,415	21.0	41.1
유 럽	26,310	-16.7	3,909	57.2	42.4	1,922	-50.8	170.7
대양주	5,963	1.2	262	-6.4	95.5	300	14.5	-
중동	527	-	98	-16.2	53.1	97	-1.0	273.1
아프리카	1,539	205.4	256	349.1	20.8	-30	-	-

자료 : 일본 재무성

□ **(특이점)**

○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가속화, 8월 20일 시점에서 매수총액이 전년동기비 77% 증가한 7조 1,685억 엔으로 연간 과거 최고였던 2012년을 상회

-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공격적인 투자로 대형 M&A가 증가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신 아베노믹스

- 2015년9월24일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의 제2단계로서, 1억 인구가 활약할 수 있는 이른바 「1억총 활약」 사회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3개의 화살』을 발표
- 아베 총리는 10월7일 개각을 단행하고, 「1억총 활약」 사회 실현을 위해 금년 중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긴급대책을 책정한 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을 표명

1] 배경

- 아베노믹스에 대해 시장과 기업이 가장 기대했던 성장전략에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
- 이에 새로운 3개의 화살을 통해 여성과 고령자들의 참여확대를 통한 1억 명의 노동력에 의한 성장잠재력 강화와 효율적인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 아소 재무상은 9월25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3개의 화살 가운데 하나인 「강한 경제」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3가지가 집약된 것이라고 설명
 - 금융완화 등 종래의 3개의 화살은 강한 경제에 포함된 것으로, 경제재생을 위한 대응은 조금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

2] 주요 내용

- 3개의 화살 중 첫 번째가 바로 「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로서 GDP 600조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 내각부 시산에 따르면 앞으로 연평균 3% 후반대의 명목성장율을 계속하는 경우 2021년 하반기에는 이 같은 목표달성이 가능
 - 과거 10년간 연평균 명목성장율이 마이너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음
- 두 번째 화살로는 「꿈을 이어가는 육아 지원」을 제시

- 출생률 1.8명을 실현하기 위해, 대기아동 제로 실현,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 다자녀 세대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 등 육아환경 개선 등을 제시
- 현재 낮은 급여수준 등을 이유로 보육사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맞벌이 세대의 증가 등에 따른 수요확대에 보육소의 정원증가가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 세 번째 화살로는 「안심한 사회보장」을 제시
 - 간병이직제도를 목표로 일과 간병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를 본격적으로 구축
 - 의욕 있는 고령자가 경제사회의 담당자로서 활약할 수 있는 이른바 「생애현역사회」를 구축
 - 현재 간병을 이유로 이직자 수가 매년 10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바, 보육사의 소득 향상, 정원 확충, 간병 분야의 지원체제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

③ 평가

- 최근 중국경제의 감속영향으로 일본경제가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해있을 가능성도 지적되는 가운데 제 2단계 아베노믹스 출발점에서부터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음
- 새로운 3개의 화살인 강한 경제, 육아지원, 사회보장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라기보다는 정책목표라는 지적임
- 신 아베노믹스의 내용 중 최대 관심 포인트는 600조엔의 명목 GDP 달성과 재정건전화를 양립시키는 구체적인 정책임
 - 일본의 민간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이 같은 목표달성에는 적어도 10년 걸린다는 견해도 있음
 - 신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여 일본경제의 파이를 크게 하려는 발상임에는 틀림없으나 문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수반되고 있지 않다는 점임
 - 인구감소율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경제의 잠재성장율은 불과 0%대 전반 또는 중반 정도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급선무인 것은 바로 이 때문임

- 따라서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것
 - TPP 타결의 추진력으로 농·어업과 노동 등 암반규제의 개혁을 추진하여 가일층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법인세실효세율의 20%대 인하 로드맵 준비 등의 기본전략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 동시에 선진국 중 최악인 재정을 재건해야 한다는 지적
 - 이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원확보와 의료 등 효율적인 사회보장을 병행할 필요
 - 그동안 금융완화로 일본은행이 시장으로부터 국채를 대량 구입하여 이미 전체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상시의 정책을 무제한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

2. TPP 타결에 따른 일본 공산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 TPP 타결에 따라 역내 관세철폐, 규칙정비 등으로 역내시장 접근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이것이 일본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역내수출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 對 역내국 수출의 관세장벽 철폐

- TPP 타결에 따라 일본의 11개 TPP수출국에 대한 수출(약 19조엔)의 99.9%에 관세가 철폐
 - 이 중 즉시철폐 비율은 76.6%

(1) 對 미국 수출

- 對 미국 공산품 수출(약 10조엔)의 100%에 대해 관세가 철폐
- 자동차 부품(현행 세율, 주로 2.5%)에 대해서는 80% 이상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미 FTA를 상회하는 수준)
 - 즉시 철폐율
 - 미·일(TPP) : 품목 수 87.4%, 수출액 81.3%
 - 한·미 FTA : 품목 수 83%, 수출액 77.5%

- 승용차(현행 세율, 2.5%)에 대해서는 발효 후 15년 후부터 인하 개시, 20년 후부터 반감, 22년 후 0.5%까지 인하, 25년 후부터 완전철폐(TPP 전체로 최장 관세철폐 기간은 30년)
- 가전, 산업기계,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액의 99% 이상에 대해 즉시 철폐
 - (예) 가전 :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관세가(현행세율 2.1%) 즉시 철폐
 - 화학 : 플라스틱제품(현행세율 2.1%-6.5%)를 즉시 철폐
- 섬유·도자기 등, 지방중소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철폐
 - (예) 도자기 : 對 미국 수출액의 75%에 대해 즉시철폐
 - 수건 : 미국의 현행세율 9.1%를 5년 후 철폐

(2) 캐나다

- 對 캐나다 공산품 수출액(약 1조엔의 100%에 대해 관세철폐)
- 승용차(현행세율 6.1%)에 대해서는 5년 후 철폐
 - 캐나다·EU FTA의 8년 후 철폐를 상회하는 수준
- 자동차 부품(현행세율, 주로 6%)에 대해서는 대일수입의 90%에 대해 즉시 철폐
 - 즉시 철폐율
 - 일본·캐나다 (TPP) : 품목 수, 95.4%, 무역액, 87.5%
 - 한국·캐나다 FTA : 품목 수, 72.2%, 무역액, 59.1%
- 화학, 가전, 산업용기계류에 대해서는 수출액의 99% 이상이 즉시철폐

(3) 뉴질랜드

- 對 뉴질랜드 공산품 수출액의 99%이상에 즉시철폐, 나머지도 발효후 7년째까지는 완전무세화

(4) 호주

- 對 호주 공산품 수출액의 94.2%에 대해 즉시철폐
 - 일·호 FTA를 상회하는 수준
- 對 호주 수출의 50%를 점하는 승용차, 버스, 트럭(현행세율 5%)의 신차는 수출액 100%에 대해 즉시철폐
 - 일·호 FTA(수출액의 75%가 즉시철폐)를 상회하는 수준

(5) 베트남(일·베트남 FTA:2009년 10월1일 발효)

- 일본기업들이 큰 수출관심을 보이고 있는 3,000cc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발효후 10년째부터 철폐
 - 70% 이하의 고율관세로 보호(일·베트남 FTA에서는 관세철폐대상이 아님)

㉒ 원산지 규칙 통일 등에 의한 對 역내국시장 접근성 개선

(1) 원산지 규칙의 통일

- TPP특혜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12개 국내 원산지규칙의 통일(사업자의 이용부담 완화)

(2) 완전누적제도

- 다수의 체약국별로 부가가치·가공공정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는 완전누적제도를 채택

(3) 자동차의 원산지 규칙

- 자동차의 원산지규칙에 대해서는 일본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이 현재 서플라이체인 하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

① 완성차의 원산지규칙

- 완성차에 대해서는 공제방식에 의한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5%
- 이 경우 특정 부품 7개 품목(유리, 보통차용 차체, 트럭용 차체, 부분품을 제외한 범퍼, 차체부분품, 차축)에 대해서는 협정상 명기된 가공공정 중(사출성형, 단조, 금속형성 등) 어느 하나라도 TPP 역내에서 실행되는 경우 원산성이 부여되는 제도를 도입

② 자동차부품의 원산지 규칙

-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관세분류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로서, 공제방식에 의한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45%-55%
- 이와 같은 공제방식에 의한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 4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구성부품에 대해 협정상 명기된 가공 공정 중 어느 하나라도 TPP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성이 부여되는 제도를 도입

③ 역내시장에서 일본산 공산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 TPP 타결에 따른 관세철폐 등으로 일본산 공산품의 수출시장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미국 등 11개 역내국가에서의 수출경쟁력이 강화
- TPP 타결에 따라 일본의 전체 수출품목수의 87%에 대한 관세가 협정 발효 후 즉시 철폐
- 일본이 수출하는 공업제품은 전부 약 6,500개 품목 금액기준으로 보면 가전, 산업기계, 화학제품 등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강한 품목도 포함하여 수출총액에서 점하는 즉시철폐분의 비율은 77%에 달함
- TPP 타결에 따른 일본제품의 수출시장접근 개선은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점유율 확대에 이어질 전망
- 이에 따라 현재 수출채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기업행동 변화, 자본재·중간재 수출의 부진, 생산의 현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의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
- 일본정부는 상세한 합의내용을 토대로 정식으로 시산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나, 일본이 TPP교섭에 참가한 2013년 시점에서는 관세철폐에 의한 공산품 수출의 증가 등으로 실질 GDP가 약 3.2조엔 증가하는 것으로 시산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9월 대일 무역적자 확대 반전

□ (총 합)

- ‘15.9월 대일무역적자는 8월보다 96백만 달러 증가한 1,662백만 달러
 - 대일 수출의 증가 반전에도 불구하고 대일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데 기인
-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8%에서 4.7%로 저하된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9.9%에서 10.7%로 상승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2%에서 7.3%로 상승

< 2015년 9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5.8월			2015.9월			2015.1-9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1,898	-24.7	-11.7	2,043	-24.4	7.6	19,374	-20.6
대일 수입	3,464	-17.9	-12.3	3,705	-21.1	7.0	34,954	-13.4
무역 수지	-1,566	-131	-233	-1,662	-330	96	-15,580	-364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5. 9월 대일 수출은 전월비 7.6% 증가, 전월의 11.7% 감소에서 크게 반전
 - 그러나 총수출의 증가율 12%에 비하여 증가폭이 적음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5. 8월	-24.7	-11.7	-14.9	-14.2	-3.1	-6.9
2015. 9월	-24.4	7.6	-8.4	12.0	-11.1	1.3
2015.1-9월	-20.6	-	-6.6	-	-6.9	-

○ ‘15. 9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금속광물, 정밀화학제품, 전자부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 수출이 증가

- 산업용전자제품과 수송기계가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기계요소공구·금형도 10%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대일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금속광물의 수출 감소폭이 -9.6%로 가장 큼

< 2015년 9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5.8월			2015.9월			2015.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1,898	-24.7	-11.7	2,043	-24.4	7.6	19,374	-20.6
1	광물성연료	288	-50.1	18.5	308	-50.3	6.9	2,661	-47.8
2	철강제품	238	-23.8	-1.4	247	-22.5	3.8	2,235	-27.6
3	전자부품	186	2.7	-11.4	180	-4.3	-3.2	1,744	-3.3
4	정밀화학제품	127	14.2	4.0	122	-4.5	-4.0	1,087	-4.4
5	산업용전자제품	88	-46.0	-29.6	112	-43.4	27.3	1,779	-11.5
6	석유화학제품	92	-32.3	-30.3	101	-23.7	9.8	1,033	-17.2
7	수송기계	81	-11.5	-33.6	100	2.3	23.5	903	-5.1
8	금속광물	104	7.8	23.8	94	-16.7	-9.6	799	-3.5
9	기계요소공구·금형	70	-19.2	-21.3	80	-8.9	14.3	710	-16.6
10	농산물	73	-16.8	-12.0	74	-11.2	1.4	733	-10.3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5. 9월 대일 수입도 전월비 7% 증가, 전월의 12.3% 감소에서 크게 반전
 -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중 총수입의 1.1%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대일수입의존도 상승으로 이어짐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5. 8월	-17.9	-12.3	-18.3	-10.0
2015. 9월	-21.1	7.0	-21.8	-1.1
2015.1-9월	-13.4	-	-16.5	-

- '15. 9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도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정밀기계,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수입이 감소
 - 수송기계의 증가폭이 35.2%로 가장 크고, 이어 산업기계, 산업용전자제품, 기초산업 기계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대일 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정밀기계의 수입 감소폭이 -12.1%로 가장 큼

< 2015년 9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5.8월			2015.9월			2015.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 계	3,464	-17.9	-12.3	3,705	-21.1	7.0	34,954	-13.4
1	전자부품	503	-7.1	-2.3	590	-4.6	17.3	4,637	0.4
2	철강제품	449	-32.6	-3.2	430	-39.2	-4.2	4,448	-30.2
3	석유화학제품	364	-29.2	-15.5	347	-42.4	-4.7	3,724	-18.7
4	정밀화학제품	299	-8.5	-4.5	313	-11.6	4.7	2,856	-12.1
5	기초산업기계	223	-19.9	-25.2	273	-7.5	22.4	2,363	-10.4
6	산업용전자제품	182	-7.7	-14.2	223	2.0	22.5	1,931	-10.3
7	수송기계	159	-21.2	-25.0	215	-1.0	35.2	1,848	-1.1
8	플라스틱제품	182	-20.6	-8.1	190	-21.1	4.4	1,761	-18.6
9	산업기계	132	-28.0	-32.0	167	-16.3	26.5	1,535	-15.0
10	정밀기계	173	9.5	-29.1	152	-12.4	-12.1	2,061	14.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

□ (동 향) ‘15.3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의 감소로 반전

- ‘15.3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222백만 달러로 전기비 67.5% 감소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의 감소폭 17.2%를 크게 상회
 - ‘15.1-3분기 누계로도 전년동기비 27% 감소
 - 건수로도 전기비 20.2% 감소
 - 전분기의 급증(136.7%)반작용도 급감 반전에 영향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3년		2014		2014.4분기		2015.2분기		2015.3분기		2015.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352 (21.3)	2,488 (-7.5)	103 (45.1)	850 (73.8)	84 (-0.2)	684 (136.7)	67 (-20.2)	222 (-67.5)	236 (-5.2)	1,195 (-27.0)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2,463 (-5.6)	19,003 (30.6)	746 (32.5)	4,185 (-6.7)	742 (33.0)	5,316 (49.5)	624 (-15.9)	4,399 (-17.2)	1,924 (12.1)	13,270 (-11.1)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한·일 기업간 협력 사례)

- 일본 테이진그룹이 1600만 달러를 증액투자, 아산시에 위치한 공장 부지에 2차전지 분리막 특수코팅 생산 공장을 추가 건설, 무로후시제작소도 500만 달러를 투자해 천안5외투단지에 4960㎡ 규모의 생산 공장을 추가 건설
 - 이들 기업의 추가 투자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직접고용 170명, 매출 7,400억원, 수입대체 2,200억원, 생산유발 2,900억원 예상(2015.10.14. 중도일보)

□ (시사점)

-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
 - 최근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도 대한투자의 플러스 요인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5.9월~2015.10월)

□ 국내 기관

- 『TPP,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의 탄생』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년10월14일
https://www.posri.re.kr/report/view/board_id/2307/page/
- 『TPP 타결이 한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10월13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520&no=43527>
- 『TPP협상의 타결과 한국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소, 2015년10월12일
<http://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View.do>
- 『TPP, 미국 주도 경제 질서 부활의 신호탄』 LG경제연구원, 2015년 10월12일
<http://www.lgeri.com/economy/domestic/article.asp?grouping=01010100&seq=997>
- 『[동향분석]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2015년 10월7일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229>
- 『TPP가 섬유·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5년 10월6일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pageNum=1&nGubun=7&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DESC&sClassification=7&actionName=&sNo=1370
- 『제조업계의 은둔자, 日 화낙의 성공 비결 - 기술 부문에서 완벽주의 추구』 포스코 경영연구원, 2015년 9월30일
https://www.posri.re.kr/report/view/board_id/2304/page/
- 『일본 기업의 중국 및 동남아 전략 재조정』 LG경제연구원, 2015년 9월30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report/contents.asp?pyear=2015&ctype=g&grouping_seq=01040200_500
- 『한국기업의 일본소비재시장 진출전략』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9월25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520>

□ 일본 기관

- 『성장전략에 필요한 TPP : 체결 후 청사진과 일본의 과제』 제일생명경제연구소, 2015년 10월22일
<http://group.dai-ichi-life.co.jp/dlri/pdf/macro/2015/naga20151021tpp.pdf>
- 『TPP 협정에 의한 일본 공업제품의 시장접근개선내용』 경제산업성 TPP대책본부, 2015년 10월 16일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external_economy/tpp/pdf/001_03_00.pdf
- 『신 3개의 화살 : 1억층 활약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닛세이 기초연구소, 2015년 10월2일
<http://www.nli-research.co.jp/report/letter/2015/letter150930.html>
- 『일본산업의 동향 : 향후 10년 주목해야할 외부환경 변화』 미즈호은행, 2015년 9월30일
<http://www.mizuhobank.co.jp/corporate/bizinfo/industry/sangyou/m1052.html>
- 『일본무역의 현황 2015』 일본무역회, 2015년 9월30일
<http://www.jftc.or.jp/research/index.html>
- 『일본의 서비스 수출의 특징과 과제』 미쯔비시 리서치·컨설팅, 2015년 9월25일
http://www.murc.jp/thinktank/economy/analysis/tenbou/tenbou_150924.pdf
- 『무역수지 구조로 본 산업구조 변화와 정책』 일본 국회도서관, 2015년 9월25일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9497210_po_077602.pdf?contentNo=1

2. 주요 경제 일정

<10월 실적>

일자	주요 내용
1	• TPP 각료회의(아틀란타)
	• 9월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일본은행)
	• 스포츠청 발족
2	• 8월 유효구인배율(후생노동성)
5	• TPP 체결 합의
	• 마이넘버 '통지카드' 발송 스타트
	• G20 통상장관회의(이스탄블)
6	• 금융정책회의(일본)
7	• 아베 내각개편(3차)
	• 8월 경기동향지수(내각부)
8	• 8월 국제수지(재무성)
14	• 10월 월례경제보고(내각부)
20	• 한일 국방장관회의(서울)
	• TPP 교섭결과 설명회(도쿄)
21	• 9월 무역통계속보(재무성)
22	• 한일 특허청장회의(서울)
	• 아베 총리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
26~27	• 한일재계회의(도쿄)
29~30	• 한일/일한재단 연락협의회 간사회(서울)
30	• 한일통상장관회의(서울)

<11월 예정>

일자	주요 내용
2	• 한일정상회담(서울)
15	• G20 정상회의(터키)
17	• APEC정상회의(필리핀)